

6/29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

한 쪽 성경공부 29

www.seeJESUS.TV [창세기부터~계시록까지]

Ver_9.07 / 김민호 목사 지음



(Diachronic synopsis)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총리가 된 이후 야곱의 가족은 애굽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심히 번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야곱의 자손들은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으로 인해 애굽에 양식을 얻기 위해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은 요셉을 만나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1) 야곱의 자손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했고 번성했으며 그 수효가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많게 되었습니다. 이즈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전쟁이 날 때 히브리인들이 적군과 합세하여 애굽을 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에게 히브리인들을 견제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은 국고성(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힘든 노역에 동원하여 학대함으로써 히브리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로의 정책은 이스라엘계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출2:23)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창50:24)

고통의 현장 라암셋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하히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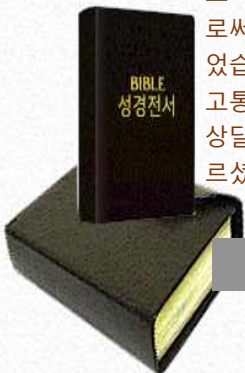
Contents

1. 비돔과 라암셋
2. 넘어가는 절기 유월절(Passover)
3. 사망과 새 생명의 바다 홍해
4. 출애굽의 의미

🔄 돌아가면서 읽기
(Reading one by one)

1 비돔과 라암셋

애굽을 기근의 멸망으로부터 구해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살펴보았지만, 형제 가운데 동생 베냐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돌아갈 때 양식은 자루에 채우고 양식을 산 돈은 그들의 자루에 넣어 보냈습니다. 그들이 한 숙소에 머물러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았을 때 돈을 보고 놀랐습니다.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며 가나안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명을 전달 받은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재난을 당할까 봐 근심했습니다.

기근은 계속되었고 2년이 흘러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또 애굽에서 양식을 사와야 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양식을 위하여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야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내려갔습니다.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오찬을 준비시켜 형제들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인질로 잡힌 시므온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오정이 이르자 베냐민을 본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어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난 후 얼굴을 씻고 다시 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모여 먹게 하고 자신은 따로 먹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5배나 먹을 것을 많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번에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도로 넣고 청지기를 시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도록 했습니다.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출발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를 시켜 뒤따라가서 자루를 열어보게 하고 도둑의 누명을 씌워 형제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다시 만난 요셉은 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은 요셉이

라고 자신을 밝히며 방성대곡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야곱과 손자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자신과 가까운 애굽 고센 땅에서 거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접한 바로 왕은 요셉에게 형제들과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또 아버지를 태워 애굽으로 오라고 가마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을 주어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창45:18)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났습니다. 야곱은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창45:28) 말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창46:3-4)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430년간 살면서 심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히브리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빨리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 바로가 나라를 다스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 ...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출1:9-10)

바로는 이들을 통제할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힘든 노역에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된 노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일까지 엄하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는 갑작스레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를 불러 히브리인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의 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산모가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비둠과 라암셋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억압과 학대 그리고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2

넘어가는 절기 유월절(Passover)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모

세는 역청과 나무의 진(津)을 바른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에 나왔다가 모세가 누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시녀를 보내어 갈대 상자를 건져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아까?”(출2:7) 그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유모, 자신의 친모에 의해 키워져 바로의 딸에게 인도되고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노역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떤 히브리인이 고역에 시달리다가 애굽사람에게 매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노역 현장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두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불의한 자가 다른 동포를 때렸습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출2:13)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불의한 히브리인은 말했습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재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출2:14) 모세의 일이 탄로가 났습니다. 바로는 이 일로 인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루우엘(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장인의 양 무리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한 떨기 나무에 불꽃이 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기나무는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

“9.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3:9-10)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2)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퍽해진 바로는 9번째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기까지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 10번째의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을 나오는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달 10일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취하고(3)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집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또한 그 고기를 불에 구어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1:29)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찌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12:13)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을 쳤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옥에 갇

힌 사람들의 장자까지, 심지어 생축의 처음난 것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바로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밤에 불러왔습니다.

“31. ...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출12:31-32)

그 나라에 사망치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애굽 온 땅이 곡하는 소리로 덮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은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4)입니다. 이 유월절을 Passover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다음날부터 7일간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히 보내려고 재촉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과 금패물 그리고 의복들을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품을 구(求)하는 대로 취했습니다.

3

사망과 새 생명의 바다 홍해

“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38.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9.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다
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 삼십년이라
41. 사백 삼십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5. 거류인과 타국 품군은 먹지 못하리라
4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47.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찌니라
48.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 그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찌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50.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대로 행하였으며
51.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

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 (출12:37-51)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마쳐지는 날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던 수많은 잡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창12:38)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숙곳에 도착했습니다. 어린아이 외에 보행하는 장정들이 600,000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급히 나오느라 아무런 양식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나와 숙곳에 이르러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바로(Pharaoh)의 손에서 구원 받은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와 그의 밤'(창12:42)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숙곳에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광야 끝에서 돌이켜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변심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애굽의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를 다 가지고 나왔고 바로가 그의 장군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바알스본 맞은 편 비하히롯 곁 해변 이스라엘의 장막 친 곳까지 다가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망했습니다. 애굽의 군사와 홍해 바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

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출14:11)

바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 광야에 갇혀 버린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고 득의만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열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출14:16)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행하니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져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고 애굽 진영은 흑암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영은 환하게 밝히시고 애굽 군사가 밤새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밟으며 건널 때 물은 좌우 벽이 되어 서 있습니다.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병거 바퀴는 벗겨지고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 ...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흐르게 하라”(출14:26)

모세가 곧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닷길 양쪽 벽으로 서 있던 바닷물이 요동치

고 무너지면서 길 한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를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고 있었으며 여전히 물은 좌우의 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행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4

출애굽의 의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단지 애굽을 빠져나온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애굽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려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5)의 통치 아래 있던 애굽은 각양 신(神)들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태양이 풍요를 만들어내는 원천으로써 신격화되었으며 또한 바로도 태양신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전수받은 신의 아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태양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지상에 내려온 신의 화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6)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알지도 못했으며 또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신격화 된 거짓 신 바로에게 충성하고 노예화되어가고 핍박과 압제의 고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은 각종 신들을 상징하는 우상들로 가득차서 태양, 악어, 매, 암소, 개구리, 뱀, 독수리, 원숭이, 따오기, 풍뎡이 등등이 신으로 숭배받는 영적으로 음란한 나라였습니다.7) 그뿐

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일강이 주는 애굽의 물질적 풍요 속에 안주하고 바로의 종살이에 익숙해졌으며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상실된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애굽의 물질적 풍요를 그리워하고 차라리 풍요 속의 바로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 낫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민11:5-6)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거짓된 신 바로에게 굴종하고 신음하는 자리, 거짓 신들의 문화로 가득 찬 우상 숭배의 자리,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리, 그리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마귀에게 종노릇도 마다하지 않는 안일한 삶의 자리,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생각열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물질의 부요함에 취해있을 때 그 곳에서부터 건져 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2)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및 순서

1.나일 강이 피로 변함. 2.개구리 재앙 3.이 재앙 4. 파리 재앙 5. 악질 재앙 6. 독종 재앙 7.우박 재앙 8.메뚜기 재앙 9.흑암 재앙 10. 장자의 죽음(유월절)

3)염소도 해당되었다.(출12:5)

4)유월절

유월절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가는 하는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한다.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문자적으로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로서 충분하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과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므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는 성도들은 이미 삶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5)바로 : 애굽의 왕을 부를 때 쓰는 칭호로서 애굽어 <페르-아아 :per-aa>의 헬라이어 음역으로 '파라오'인데 본래 애굽의 궁전을 가르키던 말이 애굽 왕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발전되었다.

6)이스라엘의 경건과 학문, 장영일, 장신대 출판부 p 62, 2000.

7)같은 책, p65

©저작권

OBS_
20030808_r2011007481_201207150000_T6_120406_120
827_ver.9.07_r



1) 5/29 인간 야곱 이야기의 주) 요셉의 꿈을 볼 것

성경본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

삶의 적용

내 생각 말해보기

유월절을 지키는 법 /10가지 재앙과 그 의미/장자 죽음 / 비하히롯과 그 의미/ 홍해바다의 영적 의미/

읽을 본문 / 출애굽기1장1-14절/출12:37-51/출애굽기 14장

출14:9-31

홍해 바다에서 받은 세례

9)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10)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18)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시더니 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 오는지라 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30)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성경 찾기

- 1) 하나님께서 비하히롯 곁 해변에 이스라엘의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14:3-4
- 2)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출14:19-24
- 3)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출14:21
- 4)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의 바닷물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출14:22
- 5) 만군의 여호와(여호와체바오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찾아보세요. 출14:19-28



마음에 담기

- 1)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이 부른 <모세의 노래>의 첫 부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나와 내 가족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묵상해보세요. 출15:1b-18
- 2) 유월절 저녁 식사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1) 출12:43-47, 요19:31-36
-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출12:37-38
- 4)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1) 세례: 고전10:1-4, 2) 벤전3:21, cf. 3) 성찬: 요6:48-51
- 5) 출14:14과 관련하여 만군의 여호와(여호와체바오트)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에게 인생의 싸움을 어떻게 대신하고 계십니까? 1) 마11:28-30